

金善煥博士의 功績을 稱頌함

建國大學校 畜產大學教授 農學博士 李 基 萬

金善煥博士는 平安北道 義州邑에서 出生하여 義州公立農業學校 獸醫畜產學科를 거쳐 Denmark의 國際國民大學을 卒業하고 다시 Denmark王立 農科大學에서 繁殖學을 專攻하고 Austria의 Wien獸醫科大學院을 卒業하고 1959年 6월에 同大學에서 獸醫學博士學位를 取得하시고 그後 家畜繁殖 分野에서 20餘年間 많은 貢獻을 남기셨다. 專攻分野에서 勤務하시기 前에는 國民의 至上義務인 軍務를 1950년부터 4個年間に 걸쳐서 遂行하는 사이에 軍樂隊長의 重責도 맡았다.

以上과 같이 간단히 經歷을 살펴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靑雲의 뜻을 품고 먼 異域의 Denmark와 Austria를 轉轉하면서 그것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同胞들이 극히 적은 環境에서 修學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本人의 才幹도 대단했지만 그 강한 意志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金博士의 功績을 말하기 전에 우선 人間性을 살펴보고 싶은 衝動을 느낀다. 金博士는 온화 重厚하셨고 同情心이 깊고 博愛的이 였으며 友愛心이 깊고 上官을 잘 모시고 부하를 잘 이해하고 後進들의 發展을 積極 支援하였으며 맡겨진 職責은 誠心誠意껏 完遂했으며 關係業務의 新開發에 恒常 積極의인 姿勢를 가지고 계셨다. 이 程度의 글로서 그의 넓고 깊은 人間性을 다 表現할 수는 없다. 如何間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따뜻한 人間味와 넘쳐 흐르는 人情味를 滿喫할 수 있었으며 넓은 見聞으로 나라걱정도 하였고 韓國畜產의 未來像을 吐露하는 것도 들곤 하였다. 그는 또 조용한 性品이면서도 活動의이고 開拓者의인 精神이 旺盛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家畜人工授精所를 創設했을 때부터 所長職을 맡아서 많은 迂餘曲切을 겪으면서 오늘날과 같이 크게 發展시켰으며 受精卵移植, 血液型研究에 까지 研究領域을 擴大했으며 動物의 鍼術麻酔, 牧草人工栽培器考案을 비롯하여 乳酒製造 등의 新案特許도 내었으며 國際活動도 매우 積極的이어서 種牝牛視察을 비롯하여 FAO會議, Spain에서의 國際繁殖學會등의 參席, Canada家畜人工授精所, 英國 및 濠洲의 畜產實情視察등 多忙한 나날을 보냈다.

이러한 그의 人品 活動 業積 愛國的 行蹟은 드디어 널리 알려진 바 되어 農協中央會 會長表彰(1977年), 大統領表彰(1979), 全國家畜人工授精協會 功勞賞(1979年), 全國家畜人工授精師會 感謝牌(1981年) 등을 받게 되었다.

金博士는 眞情으로 國家的인 思考次元에서 畜產分野에 몸을 실고 家畜繁殖關係의 公的職責遂行 後進養成 學問研究에 沒頭하면서 圓滿한 人間味를 豐饒하게 풍기는 中에 어느덧 20餘年이란 歲月을 보내고 이제 停年을 맞이하여 公職을 떠나게 되니 이제 舊友의 한 사람으로서 펜을 드니 萬感을 어찌 다 處理하기 어려운 心情이 되었다. 겨우 위와 같이 몇가지를 우선 回想하면서 다음에 拙筆이나마 몇 가지 적어서 그의 功績을 稱頌코자 하는데 筆力이 너무 不足하여 오히려 金博士의 功績을 깎는 結果가 되지 않을까 저오기 걱정됩니다만 不足한 點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諒海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家畜人工授精事業의 開拓

우리나라는 1940年代 初盤에 馬에 대해서 人工授精을 部分的으로 施行하였으나 他家畜에는 施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後 解放後의 混亂과 6.25의 餘弊로 오래동안 授精事業은 施行하지 못하다가 1962年 1월에 農協中央會 傘下에 家畜人工授精所를 設置하게 되고 3月 1일에 金博士가 初代 所長으로 就任하였다. 그러나 開設初이므로 施設은 未備하고 規模는 적고 人力은 不足하고 農民의 收容態勢 또한 不足한 가운데 그야말로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式으로 事業을 進陟시켜서 當年에 우선 乳牛 758頭 豚 30,745頭에 대하여 처음으로 一般人工授精을 實施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家畜繁殖史에는 勿論 畜產史에 一大劃期的 大事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Holstein種牝牛 1頭를 導入하여 利用하던 것이 現在는 種牝牛가 總 111頭 즉 Holstein 30頭 韓牛 67頭 西洋肉牛 14頭를 保有하게 되었고 한편 市郡에는

家畜人工授精所가 171個, 個人授精所가 185個, 囑托授精所가 100, 授精師 1,000餘名을 가지는 巨大한 連關組織으로 擴大되었으며 1972년부터는 家畜改良事業所로 改稱하고 韓國의 家畜增殖과 改良에 貢獻한 바가 크다. 그間 液狀精液을 使用하다가 1970年代부터 冷凍精液으로 轉換하여 授精率을 크게 向上시켰다.

2. 後進養成

金博士는 1960년부터 2年間 서울大學校講師를 비롯하여 春川農科大學, 農協大學, 建國大學校, 中央大學校, 高麗大學校 등의 學部 또는 大學院에서 講師로써 多忙한 中에도 後進을 위하여 教鞭을 잡으셨고, 授精師의 養成과 再教育 등을 수시로 實施하여 家畜繁殖에 관한 知識과 技術을 提高시키는데 先導的인 役割을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地方授精所를 訪問하여 一線技術者를 위하여 現地指導도 자주 實施하여 結局 農民에게 奉仕하는 마음으로 一貫하셨다.

3. 研究業績

金博士는 學問研究에 있어서도 많은 活動과 業績을 남겼다. 우선 學會活動에 있어서는 國際家畜繁殖學會員, 國際不妊學會員, 國際家畜人工授精學會員, 國際受精卵移植學會員 등으로 있으면서 國際學術研究活動에 적극 參與하였으며, 韓國畜産學會員, 韓國家畜人工授精協會會長과 韓國酪農學會副會長 및 韓國家畜繁殖研究會會長職 등을 歷任하시어 學會의 發展에 적극 努力하였다. 둘째로 研究에 있어서 그 業積이 많다. 특히 精子나 精液에 관한 研究論文은 66篇이나 되는데 精子의 活力性에 관한 研究를 깊이 實施하여 人工授精時의 受胎率向上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세계로 家畜繁殖抄錄集을 發刊하여 後學이나 同學者에게 知識을 普及하는데 努力했으며 기타 家畜繁殖學, 家畜人工授精 등 7卷의 著書를 내어 우리나라의 繁殖學知識을 提高하는데 많은 貢獻을 하였다.